

KWDI

해외통신

2020년 6월 1차 (2020.6.1 ~ 6.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코로나19 위기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아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직전 6개월 평균에서 1개월로 한시적 변경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수령 방식을 변경한다. '아동보조금'은 독일 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자녀당 최대 월 185유로(한화 약 25만 원)를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Kindergeld)'과는 별개이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가족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현재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소득이 줄어든 가족은 더 나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아동보조금을 보다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기 전 아동보조금은 지난 6개월간 부모 또는 파트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됐으며 절차도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지원조치로 부모 또는 파트너 관계에 있는 가족은 2020년 9월까지 지난달(한 달) 소득만으로 아동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매월 1일에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보조금을 신청하는 해당 월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 긴급 아동보조금은 ▲단축근무보조금(Kurzarbeitergeld)을 받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로 현재 수입이 없거나 코로나 위기 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초과 근무가 없어져 소득이 줄어든 경우 ▲현재 실업 수당이나 병가 수당을 받는 경우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축근무보조금'은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 직원의 1/3 이상이 월 급여의 10% 이상 손실을 볼 경우, 정부에서 손실액의 60%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손실액의 최대 67%까지 보상해준다.

참고자료

-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0), "Kinderzuschlag beantragen", <https://con.arbeitsagentur.de/prod/kiz/ui/start> (접속일 : 2020.06.05.)
-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 (2020.04.01.), "Hilfe für Familien mit kleinen Einkommen in der Corona-Zei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hilfe-fuer-familien-mit-kleinen-einkommen-in-der-corona-zeit/154384> (접속일 : 2020.06.05.)

정확한 아동보조금 금액은 소득, 아동 수, 주택 비용 및 아동 연령과 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족이 소득 변화가 생긴 경우, 오는 9월까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조금은 현재 부모 또는 두 파트너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이미 아동보조금을 최대 185유로로 받고 있는 가족은 오는 9월까지 자동적으로 지급이 연장되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아동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도, 긴급 아동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동보조금을 받는 아동의 유치원 비용은 자동 면제된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이번과 같은 긴급 아동보조금 지급 절차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보조금 신청 전에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2019년, 80만 명의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보조금을 120만 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당시 아동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5억 7,500만 유로(한화 약 7,877억 원)로 늘렸다. 아동보조금 외에도 독일 정부는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버스 및 기차 등 무료 교통 티켓, 무료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여성들, 정부의 코로나19 의사결정에서 여성대표성 증대 요구

곽 서 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수도 3만 4천명에 다다른 상태이다.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전에 비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경우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탈리아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맞서 고군분투 해왔는데, 이탈리아 내 보건의로 분야 종사자 2/3가량이 여성이고,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처음 성공한 과학자 세 명 모두 여성이었다. 이런 상당한 역할 이행과는 대조적으로, 이동제한령 완화 및 포스트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에는 여성 대표성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여성의 목소리가 아예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단적인 예로, 정부 측에 코로나19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위원회(technical scientific committee, CTS)에는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문제가 되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코로나19 대응에서 여성이 포함된 경우는 수화 통역사 1명뿐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여성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참고자료

- ABC News (2020.05.08),
"Women demand voice in Italy virus response dominated by men",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women-demand-voice-italy-virus-response-dominated-men-70549850>
(접속일 : 2020.06.09.)
- BBC News (2020.05.08.)
"Dateci Voce: Italian women demand voice in Covid-19 fight",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588862>
(접속일 : 2020.06.09.)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여성들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여성 대표성 증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는 이탈리아어로 “우리에게 발언권을 달라”라는 뜻인 Dateci Voce 라는 이름의 그룹 페이지가 개설되었으며, 해당 그룹에서는 #Dateci Voce 라는 문구를 마스크에 적어 쓰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는 이탈리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 그룹에서 시작한 온라인 청원에는 4,500명 이상이 서명했는데, 의회 의원, 과학자, 연구원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온라인 청원에는 16명의 여성 상원의원들도 서명하고 상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정부 측에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16명의 여성 상원의원 중 한 명인 엠마 보니노(Emma Bonino)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해 “남성들끼리 서로 의사결정 권력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구조가 마치 남성 전용 모임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는 이번 청원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이후 내각 장관 및 자문위원회에 코로나19 관련 조직 구성에 있어 남녀 대표성 균형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실제로 콘테 총리는 5월 12일, 코로나19 대응 기술자문위원회에 5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했다.
-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서 부족했던 여성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시민들이 주도한 온라인 청원 운동을 계기로 총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번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la Repubblica (2020.05.12), “Conte: “Ecco le donne che entreranno a far parte delle task force di Colao e Borrelli”, https://www.repubblica.it/politica/2020/05/12/news/mozione_donne_italia_viva-256385934/ (접속일 : 2020.06.09.)
- Politico (2020.05.19.), “Italy’s ‘boys’ club’ politics shuts women out of coronavirus debate”, <https://www.politico.eu/article/coronavirus-italy-women-political-debate/> (접속일 : 2020.06.09.)

캐나다 CANADA



캐나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의료접근 제한에 대응해 팔뚝에 이식하는 임플란트형 여성피임기구 상용화 허가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흔히 임플라논으로 불리는 넥스플라논(Nexplanon)은 여성의 팔뚝에 대략 성냥개비 크기 정도의 플라스틱 기구를 삽입하여 배란을 억제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피임기구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상용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임상실험 결과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태껏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캐나다의 도시 대부분이 비상상태를 몇 달째 유지하면서 낙태시술 가능 클리닉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5월 25일 캐나다 보건부가 넥스플라논의 사용 허가를 발표했다.

참고자료

- Global News (2020.5.26.), “Health Canada approves birth control arm implant Nexplanon”, <https://globalnews.ca/news/6990053/nexplanon-contraceptive-health-canada-approval/> (접속일 : 2020.06.09.)

임플란트형의 여성피임기구는 비영구 장기 피임법(long-acting reversible contraceptives: LARCs)으로 분류되며 크게 자궁 내(intrauterine device: IUD) 혹은 팔뚝에 기구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임플란트형 기구를 이용한 피임방법은 경구 피임약보다 피임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형 암을 앓은 경력 등의 이유로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피임약을 복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IUD의 경우 자궁 내에 기구를 이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문화적, 심리적 진입장벽이 있는 반면, 팔뚝에 이식하는 넥스플라논은 이식과 제거가 매우 간편하면서도 대략 3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피임 효과가 지속되어 효과성과 안정성, 접근성이 높은 피임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북미의 전문가들은 체내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비영구 장기 피임법을 낮은 연령대의 여성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예컨대 2014년 미국 소아청소년의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처방할 우선적인 피임법으로 장기 피임법의 사용을 추천하였으며, 캐나다 산부인과회(Society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of Canada) 또한 2016년 발표한 지침에서 의료진들로 하여금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IUD를 우선 추천할 것을 권장했다. 2018년에는 캐나다 소아청소년의학과협회(Canadian Paediatric Society)는 ‘IUD가 현재 가용한 가장 효과적인 피임법으로 의사들은 다른 방법에 우선하여 1순위로 이를 여성 청소년들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권장하였으며, 경구피임약, 패치 등 호르몬을 이용한 여타의 피임방법을 2순위로, 콘돔, 살정제 등을 3순위로 처방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캐나다에서 자궁 내 임플란트 설치의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는 권유되지 않았었지만, 캐나다 소아청소년의학과협회는 2018년 성명을 통해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IUD를 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관습을 바꿀 때가 되었고, 의료진은 효과성을 제1기준으로 고려해 저연령대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산부인과협회에서 2017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여성의 4% 미만이 구리 IUD를 사용해 보았으며, 약 44%의 여성들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인 등의 호르몬을 함유한 경구 피임약을 이용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료계가 추천하고 있음에도 자궁 내 기구를 설치하는 피임방법은 캐나다에서 극히 소수만의 여성만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캐나다에서는 넥스플라논의 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정부를 압박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세계 여러국가들이 넥스플라논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캐나다 여성들 또한 다른 나라와 같이 간편한 피임방법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전문가들 또한 99%대에 달하는 넥스플라논의 효과성과 낮은 부작용률을 내세워 왔다. 2019년에는 캐나다의 여성 청소년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도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피임법인 넥스플라논의 사용을 허가하여 자신과 같은 여성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을 트위터 수상을 향해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번 보건부의 갑작스러운 넥스플라논 사용 허가 결정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압박의 결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보건부에서 수개월 내에 의료진에 대한 넥스플라논의 이식 및 제거 교육 실시 후 조속한 상용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he Globe and Mail (2018.05.30.),
“Canadian Paediatric Society says
doctors should offer IUDs as first-
line birth control option for young
girls”,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anadian-paediatric-society-says-doctors-should-offer-iuds-as-first/>
(접속일 : 2020.06.09.)



영국,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의료 격차, 흑인·아시아계 여성이 가장 큰 타격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흑인·아시아계 여성(BAME: 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이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 중 절반 이상이 흑인·아시아계 여성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인종 간 경제적,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BAME는 흑인·아시아계 소수민족을 뜻하며, 영국에서 인구를 인종 출신별로 분류할 때 백인이 아닌 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 영국 여성단체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가 2020년 6월 8일 발표한 ‘코로나19, BAME 여성에 미친 영향(Coronavirus: Impact on BAME Women)’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나 퇴직 등으로 실업 상태인 BAME 여성 10명 중 4.2명(42.5%)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지원금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실업 상태인 백인 여성 10명 중 1.2명(12.7%)이 ‘정부 지원금이 끊겼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노출된 BAME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셈이다.
- 이 여론조사는 포셋 소사이어티가 영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베이션(Survevation)에 의뢰해 2020년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영국 전체 남녀 3천280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BAME 여성과 백인 여성은 각각 448명, 1천308명이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BAME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빚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BAME 여성 중 42.9%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빚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해 ‘그렇다’고 답한 백인 여성 응답자(37.1%) 비율보다 5.8% 높았다. 또한, BAME 여성 응답자 중 42.9%가 앞으로 3개월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정부 지원뿐 아니라 공동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 비율도 백인보다 BAME 그룹이 더 높았다. BAME 여성 응답자 중 48.3%가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백인 여성 응답자 비율은 34%였다. 또한, BAME 여성 응답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같은 응답을 한 백인 여성 응답자는 18.7%에 불과해 정부와 공동체 지원에서 소외된 BAME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영국에서 인종 간 의료 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 중 55%가 BAME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입원한 임산부 숫자는 총 427명으로 이중 BAME 여성은 233명이었다. 4월엔 만삭 임산부이자 간호사였던 흑인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참고자료

- Fawcett society (2020.06.08.), “coronavirus impact on BAME women”, <https://www.fawcettsociety.org.uk/coronavirus-impact-on-bame-women> (접속일 : 2020.06.10.)
- Fawcett society (2020.06.08.) “BAME women and Covid-19 - Research evidence”, <https://www.fawcettsociety.org.uk/Handlers/Download.ashx?IDMF=cae4917f-1df3-4ab8-94e7-550c23bdc9cf> (접속일 : 2020.06.10.)
- Marian Knight DPhi (2020.05.11.) “The UK Obstetric Surveillance System SARS-CoV-2 Infection in Pregnancy Collaborative Group”, <https://www.npeu.ox.ac.uk/downloads/files/ukoss/annual-reports/UKOSS%20COVID-19%20Paper%20pre-print%20draft%2011-05-20.pdf> (접속일 : 2020.06.10.)
- The Guardian (2020.06.08.) “Coronavirus UK: BAME women suffer harder financial hi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n/08/coronavirus-uk-bame-women-suffer-harder-financial-hit> (접속일 : 2020.06.10.)
- The Guardian (2020.05.16.), “BAME women make up 55% of UN pregnancy hospitalisations with Covid-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16/bame-majority-pregnant-women-hospitalised-covid-19-troubling-midwives> (접속일 : 2020.06.10.)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산 전후 전염병학과(National Perinatal Epidemiology Unit) 소속 메리안 나이트 교수가 주도한 ‘영국 산부인과 감시 시스템과 임산부 그룹의 사스 및 코로나19 감염(The UK Obstetric Surveillance System SARS-CoV-2 Infection in Pregnancy Collaborative Group)’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는 해당 기간 영국 전역에 있는 194개 병원의 임산부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BAME 여성 비율이 백인보다 더 높은 것과 관련, 인종에 따라 산모 건강 격차가 크게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여성은 임신 합병증과 출산으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 여성보다 5배, 아시아 여성은 2배 이상 높다.

📌 이 연구를 주도한 나이트 교수는 “산모 인종에 따라 산모 건강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코로나19 감염 임산부 절반 이상이 BAME 여성이라는 불균형의 정도”라고 우려했다.